

숲·벼농사 체험...마을공원, 느끼고 배운다

광주시 11월까지 '시민참여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 6개 민간단체 선정...16개 공원에서 다양한 자연·문화체험

"마을 공원에서 다양한 문화 즐기세요." 광주시는 11월까지 시민들이 도심 속 공원에서 여가와 문화생활 등을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지난 2월 민간단체에서 각 공원의 특성에 맞춰 자체 기획한 '도시공원 이용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개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은 매년 공원이용객들

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16개 공원에서 숲체험, 도예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여진다. 전국 최초 도심철도 폐선부지인 푸른길 공원에서는 푸른길 조성 유래와 각 구간별 테마를 주제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푸른길 안내지도도 제작해 배포한다. 동구 두암근린공원, 서구 풍암호수공원 등 5개 자치구 10개 공원에서는 (사)광주생명여숲국민운동에서 '숲 체험도 하고! 천연 기습기도 만들고!'라는 주제로, 숲 속

놀이터 체험과 천연 기습기(석창포 화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두암제2근린공원은 '숲 속 친구 생태와 놀자, 자연에 흠뻑 빛나는 생활도에 이야기'라는 주제로 숲 속 동식물 관찰 체험, 도자기 빚기 체험이 진행된다. 일곡지구 한새봉 농업생태공원은 모내기에서 추수까지 벼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한새봉 텃밭학교'가 운영되며, 일곡공원에서 '공원에 핀 사람 꽃'이라는 주제로 생태안내자 교육, 숲 놀이터 조성, 사계절 놀이 활동이 마련된다. 또 영산강대상공원(시민의 숲)에서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한마음길 함께 걷기와 산책로에 조성된 숲 체

험 활동을 전개하며, 장애인이 마음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쌍암공원에서는 (사)한국예술진흥회가 '노는게 제일 좋아'라는 주제로 공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예 체험 학습을 선보인다. 6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일정과 참여 방법 등은 각 단체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정대경 공원복지과장은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다양한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서구 인생재설계 상담...매월 신청자 모집

광주시 서구가 주민의 사회참여를 위해 영역별 인생재설계 상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서구에 따르면 인생재설계 상담 지원 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대상자가 처한 상황을 공감하고 맞춤형 평생학습 제공을 통해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인생재설계를 준비하는 서구 주민으로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12월까지 매월 수시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상담은 매주 마지막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광주시 서구 평생학습

관에서 운영되며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은 4회까지 가능하다. 상담분야는 3개분야로 진로분야, 학습분야, 심리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상담 신청은 서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365edu.seogu.gwangju.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서구 평생학습관(062-350-4974)으로 방문 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인생재설계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조선대 국책연구단과 뇌연구원 협력연구단 개소 광주시 치매극복 나섰다

광주시가 다양한 치매극복 기술 개발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10일 오전 조선대학교 의대 한마음홀에서 국가 치매 원인규명, 조기예측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한국뇌연구원 협력연구단'을 개소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한국뇌연구원,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과 공동으로 치매극복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이번 한국뇌연구원 광주협력연구사업은 5년 간 총 98억원(국비 75억, 시비 15억, 민자 8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특히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의 치매연구성과와 축적된 치매코호트 빅데이터를 활용해 치매 원인규명 및 조기예측과 치료기술을 연구하게 된다. 또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과학기술원, 동산대학교 등이 이번 연구사업에 참여한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치매 고위험군 선별 및 장기 추적연구를 통해 ATN(아밀로이드 베타(A), 타우단백(T), 신경퇴행(N)) 바이오마커 기반 치매 분류체계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 표준화 ▲치매 전주기 인체 다중 오믹스 DB 구축을 통한 신개념 바이오마커 확립 등이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최근 5년동안 치매 조기 예측기술개발을 위해 지역민 1만여 명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표준화 바이오-의료 빅데이터를 확보·분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달뫼마을 벽화 그리기 주민들과 KT&G의 자원봉사팀 상삼univ 소속 대학생 150여명이 광주시 남구 월산동 달뫼마을 골목길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다. 광주의 대표 달뫼네인 달뫼마을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9 문화적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전망대와 골목 영화 상영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광주 3월 취업자 2천명 늘고 실업자 8천명 줄어

전년동월비 실업률 0.9%p 감소 산업별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만7000명(8.8%), 제조업 2000명(2.1%)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업 1만5000명(-9.4%), 전기·운수·통신·금융업 6000명(-7.5%), 건설업 5000명(-6.8%) 등에서는 감소했다. 직업별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관리자·전문가 1만2000명(6.7%), 사무종사자 7000명(6.2%) 등이 늘었다. 하지만, 기계조작·조립 단선 1만명(-3.5%), 서비스 판매 종사자 9000명(-5.0%)이 줄었다. 중상위 지위별 취업자의 경우 비임금 근로자 수는 16만4000명, 임금 근로자 수는 58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명(-5.8%) 감소했고, 이 중 자영업자는 4000명(-2.8%), 무급 가족종사자는 6000명(-23.9%) 줄었다. 임금 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2.1%) 증가했고, 이 가운데 상용 근로자는 3만명(7.8%) 늘었으나, 임시 근로자는 1만2000명(-8.4%), 일용 근로자는 6000명(-16.5%) 줄었다. 오영길 광주시 일자리정책관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내 다양한 일자리 혁신주체들과 함께 더 활발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동구, '동구의 봄' 사진공모전...내달 10일까지 접수

광주 동구가 '제3회 동구의 봄'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영상미디어센터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사진공모전은 다음달 1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동구의 봄을 표현한 자연경관이나 동구 관광명소의 독특함을 담은 작품이면 누구나 출품가능하다. 응모분야는 디지털카메라 또는 스마트폰 사진으로 작품규격은 2MB 이상의 JPEG·JPG파일이다. 응모방법은 동구

영상미디어센터나 동구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진과 함께 이메일(imyummy@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된 사진은 심사를 거쳐 6월중으로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1명 20만원, 장려상 3명에 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과 상장을 수여한다. 문의는 동구영상미디어센터(062-225-8703)로 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환경공단 광주천 32개 교량 안내포스트 부착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강열)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광주천 구간 일대 32개 모든 교량에 숫자와 지리 정보를 담은 '안내포스트'를 부착한다. 공단은 다가오는 내·외국인들과 광주천을 찾는 시민이 광주천의 지리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숫자지리포스트'를 개발했다. '숫자지리포스트'는 현재 '광천2교', '광암교'와 같이 다리명만 기재 되어있는 안내 표지판을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교각의 고유숫자, 교각명, 앞뒤로 위치해 있는 교각과의 거리, 간단한 지리정보, 비상전화 등을 담아 만들어질 계획이다. 또 광주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에 따라 공공시설물인 교량에 맞춰 디자인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

市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시험기관 인증 획득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식품분야 잔류농약에 대한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KOLAS 국제공인 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및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국제표준(ISO·IEC 17025)에 적합한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국가 제도다. 이번에 연구원이 획득한 KOLAS 인

정은 식품 중 잔류농약 분야로는 지역 최초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 다빈도 검출 항목인 디니코나졸, 아족시스트로빈, 클로르피리포스, 에타복삼, 비벤트린 등을 인정받았다. 연구원에서 발급한 공인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 상호인정협정(ILAC-MRA)에 가입한 103개국 인정기구의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성적서와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나주, 다도댐 부근,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전원주택, 펜션, 별장등 최고장소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토목공사 완료
 - 150평~200평씩 분할 매매 가능
 - 매매-14억2,3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